



2015년 12월 제57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소식

발행인: 홍성태 편집인: 김재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전화: 02)794-4146 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15년 12월 현재 255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97,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5, 수의학 3, 간호학 19, 영양학 6, 생명과학 4)이며, 개인회원은 43명입니다.

특별회원은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메드소프트,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앰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크림슨인터랙티브코리아(주), Editage, Google Inc.,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NHN(주), XMLink Co., Ltd., 총 18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본 협회회는 2015년 12월 4일(금), 5일(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에서 제9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업무 소개', 'KoreaMed, Synapse, KAMJE press 및 XMLink 소개',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 'Indexed to SCIE/Medline: what is next step?', 'How to manage the editorial board?',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How to change my journal to online-only?', 'Ambiguities in Korean author names', 'ORCID updates: connecting research and researchers', 'CRedit: 저자 역할 구분하기', '편집인이 알아야 할 의학통계: NEJM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편집인이 알아야 할 출판윤리', 'SCOPUS 등재', '국내학술지 등재제도 및 KCI 현황 소개', 'The problem of publication bias', 'GPP3 (Good publication practice)', 'GPP3 workshop', 라는 주제 아래 총 18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학술지 편집인과 관련 종사자 포함 총 1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6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안내



의편협에서는 학술지 편집위원,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6회 논문작성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16년 1월 3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

<논문작성 워크숍 일정>

09:00-09:05	인사말	홍성태(의편협 회장)
09:05-09:10	과정 소개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10-09:50	Ten ti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논문 작성의 원칙과 기본 요령	홍성태(의편협 회장)
09:50-10:30	표지, 제목, 및 초록 다듬기	이선영(의편협 교육연수위원)
10:30-10:50	휴식	
10:50-11:30	서론, 재료 및 방법 및 결과 다듬기	황 건(인하의대)
11:30-12:10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그림파일 작업 도구	김지형(서울성심병원)
12:10-13:30	점심식사	
13:30-14:20	Zotero를 이용한 논문작성 (문헌검색부터 참고문헌 작성까지)	김지형(서울성심병원)
14:2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 • 웹에서 클릭만으로 메타분석 끝내기 	문건웅(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15:20-15:40	휴식	
15:40-16:20	How to write a research paper in English	Steven Ward(Editage)
16:20-16:50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	배종우(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6:50-17:2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박중원(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17:20-17:30	종합 토론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연구, 조사 등에서 사용하는 도구 (tool)의 사용과 허가에 대한 의편협 출판윤리위의 견해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제작한 설문 도구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연구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 권리는 연구자 사망 후 70년간 지속됩니다.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왕에 만들어진 설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용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이용은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넣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용은 이용의 일부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copyright clearance center (www.copyright.com)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35조의 3, 미국저작권법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자가 이 저작물을 Open Access로 공개하면서 이를 허가없이 사용하여도 좋다고 명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요약하면, 설문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나, 무상으로 공개된 경우나 일반적인 연구 목적이라면 '공정한 이용'의 범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설문 도구의 전체 내용이 공표되어 있는 것이며, 현재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구자가 특정 도구를 사용할 때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전인 연구계획과정에서 사용할 도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도구 사용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이며, 도구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



제35차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2015년 11월 12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평가회에는 KoreaMed에 미등재된 학술지 중 7종(구강회복응용과학지, 대한간암학회지, 대한비뇨기종양학술지, 한국학교보건학회지,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Journal of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6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1. Journal of Dental Rehabilitation and Applied Science

(평점: 3.26)

Journal of Dental Rehabilitation and Applied Science는 대한턱관절교합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년 4회 발행됩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5년 9월호(31권 3호)로 원저 6편, 종설 1편, 증례보고 5편 등 총 12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나 디자인이 세련되고 미려 합니다. 목차란에서 종설, 원저 등 논문종류를 기술할 것이 권장 되며, 종설이 원저 뒤에 배치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영문 투고규정에서 오자가 발견되고 약어해설이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투고규정에서 제목 작성요령과 저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으며, 윤리규정은 ICMJE의 uniform requirements를 따른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논문 투고에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적절치 않으므로 학술지 별도의 윤리규정을 두거나 윤리부문만 취급한 다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제목과 저자명의 기술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논문들이 있고, 제목에 약어를 사용한 논문이 있습니다. 초록에서 부적절하게 대문자가 사용된 논문,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이 있으며, 원저의 경우 Purpose가 To 부정사로 구성된 논문과 full sentence로 되어 있는 논문이 섞여 있어 통일이 필요합니다. 중심단어의 선정이 대체로 부적절하고, 오자가 있는 논문과 약어가 사용된 논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체재가 투고규정에 정한 바에 어긋나거나 구성요소의 일부(결론)가 누락된 논문도 있어 체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running title이 누락된 논문도 있습니다. 참고문헌의 기술에서 투고규정에 정한 학술지 약어명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과 서지정보에 불필요하게 discussion, quiz 등을 덧붙인 논문이 있습니다. 표에서 수치의 단위가 누락된 논문, 가로줄이 있는 논문, 오자가 있는 논문(p.222, Specilaties)이 있습니다. 흑백사진에서 컬러로 설명하고, 여러 장의 사진에 별도의 부호를 부여하지 않아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논문이 있으며, 다른 원저에서 차용한 사진으로 추정되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기술이 없는 논문이 있습니다. 도형그림에서 부호(*) 설명과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p.182, Fig. 5), 흑백그림에서 컬러로 설명한 논문이 있으며, 해상도가 떨어지는 도형그림(p.225-226)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편집 관리는 되고 있으나, 윤리 규정을 포함한 투고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 즉 초록, 중심단어, 본문 체재, 저작권 문제 등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Journal of Liver Cancer

(평점: 3.60)

Journal of Liver Cancer는 대한간암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년 2회 발간되며, 금번 평가 대상은 2015년 9월호(15권 2호)로서 종설 3편, 원저 3편, 증례 보고 6편 등 총 12편이 게재되었으며, 해외저술 소개로 3편의 초록이 논평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영문 투고규정에서 오자와 잘못된 약어가 발견되고, 한글 투고규정에서 참고문헌의 기술 중에 부적절한 문장이 있습니다. 투고규정이 갖추어야 할 요소 가운데 제목 작성 요령과 저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곤 대부분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글 논문제목에 부적절하게 영문을 사용한 논문이 있지만 제목과 저자명의 기술은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초록에서 원저의 경우 Background/Aims가 To 부정사로 구성된 논문과 full sentence로 되어 있는 논문이 섞여 있어 통일이 필요하며, 부적절하게 대문자가 사용된 논문이 있습니다. 비교적 본문의 체재는 잘 관리되어 있으나 한글요약이 누락된 논문이 있고, 몇 군데 오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은 오류 없이 잘 관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편집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며,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평점: 3.45)

대한암예방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연 4회 발간되며 심사대상이 된 2015년 9월호(제20권 3호)에는 2편의 종설과 6편의 원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PubMed Central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표지 디자인은 제호를 그래픽화하여 우측 끝에 배열하였고 전반적인 디자인이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서 SCI 인용지수가 신규 평가 대상 학술지 중 가장 높았고(0.043) 비교적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참고문헌 오류가 적었습니다. DOI를 부여하고 있고 CrossRef, CrossMark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우수하였습니다.

투고규정이 중심단어를 5개로, 표와 그림의 숫자를 5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이 다수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수정하게 하거나 규정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합니다. 요즘 연구에서 강조되는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관련 규정이 저자점검표의 한 항목으로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내 논문의 인용이 적은 것 또한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할 약어에 대한 표가 잘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게재된 논문에서는 이에 맞춰 기술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나 비교적 체제가 잘 정비된 학술지로 이미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어서 조금만 보완하면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4. 대한비뇨기종양학술지

(평점: 3.18)

대한비뇨기종양학회와 대한전립선학회가 공동으로 연 3회 발간하는 학술지로 심사대상이 된 2015년 8월호(제13권 2호)에는 종설 4편, 원저 3편, 증례 1편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NLM에 납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납본을 하여 향후 MEDLINE, PMC 등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 도안은 무난하였습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SCI 인용지수가 0.022로 신규 평가 대상 학술지 중에서 높은 편이었으며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에 빈 페이지가 많아서 짜임새 있는 편집이 아쉬웠으며 목차에 논문 분류가 없어서 이런 점들을 향후 개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서지정보 측면에서의 참고문헌 오류는 적은 편이나 논문 한 편에서는 모든 참고문헌의 표기형식이 투고규정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원고편집인 채용을 통해 원고 형식을 점검하도록 하거나 출판사의 최종 점검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검토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진 중에서 그림 설명에는 노란색, 녹색 등의 언급이 있는데 사진은 흑백이고 사진에서 나타나는 특이소견을 화살표 등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도형 그림에서 세로축에 대한 설명과 그림에서 사용되는 약자에 대한 설명 등이 좀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여 좋은 원고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진 학술지로 편집에 있어서 수정할 점들을 개선하면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5.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평점: 3.01)

KDS 는 2008년에 창간되어 연2회 발행되고 있는 대한치의 학회의 공식 영문학술지로 금번 평가대상은 2015년 1월호 (vol. 8 - No. 1) 입니다. 표지 도안이 우수하고, 표지에 일부 논문의 제목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소개된 일부 논문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대체로 일정한 구성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만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투고규정에 오자가 발견되었고 Aims & Scope에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되어 편집인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의 투고규정에서 참고문헌의 숫자, 증례보고의 작성요령 등과 같은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및 논문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으며 책임저자 및 저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윤리 규정부분은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COI, IRB 출판 윤리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논문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잘 쓰여지기는 하였으나 일부에서 인용기호가 문장의 중간에 있거나, 참고문헌 표기 오류, 그림에 index가 없고, 그림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오류 등이 발견 되었습니다. 비교적 알찬 내용으로 통일성 있게 잘 구성된 학술지이나 명확한 투고규정의 마련 및 일부 오류에 대하여 교정한다면 보다 좋은 학회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설도 1-2편 정도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6. Journal of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평점: 3.00)

JMBS 는 비만과 대사질환에 대한 외과 기초 및 임상 의약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연 2회 발간되는 대한비만대사외과 학회지의 공식학술지 입니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5년 6월호 (VOL. 4 - No. 1) 입니다. 표지 도안은 특별히 흠잡을 때가 없으며, 다만 뒷면은 광고지보다는 앞면과 통일성을 생각한 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고규정에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및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도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 투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 작성 요령과 책임 저자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처음 나오는 단어 임에도 약어로만 표기를 했다든지, 문장 중간에 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점, 같은 의미의 표시를 중복 사용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및 도표는 모든 논문에서 잘 정리되어 있었고 참고문헌은 대부분 투고규정에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편집된 학술지로 생각됩니다.

제14차 KoreaMed 등재 7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개최



의편협에서는 KoreaMed 등재지를 7년 주기로 평가하여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08년에 등재된 학술지 중 6종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의편협이 마련한 자체평가, 실물평가, 협의회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기준 평점 3.0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는 KoreaMed 등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연속 평점 3.0 이하를 받을 경우 등재 자격을 상실하여 KoreaMed 등재심사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회원 학술지 간행위원회 지원



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소 교수가 지난 11월 13일 제주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인 대한심장학회 간행위원회 워크샵에서 학술지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지원하였습니다.



Synapse (& KAMJE Press): 논문 인용정보 (Citation) 내려 받기와 Facebook, Twitter, e-mail로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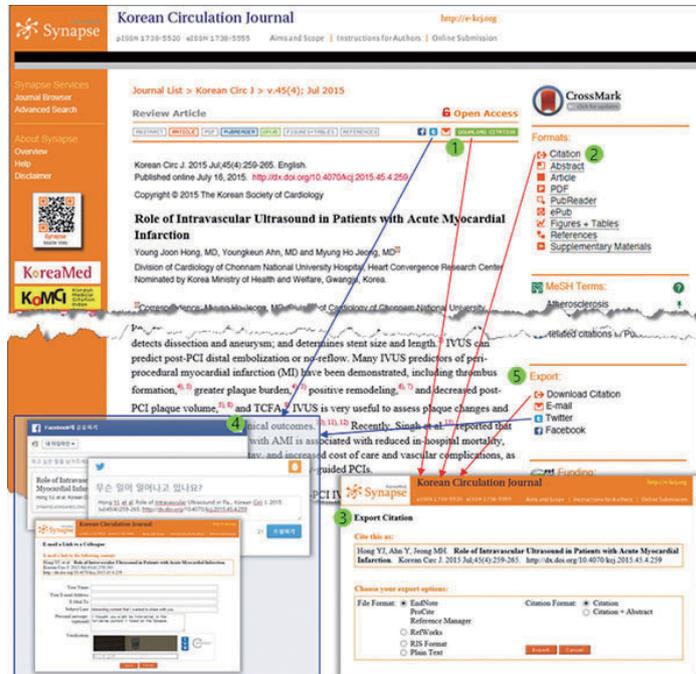


그림 1. Synapse 논문 인용정보 (citation) 내려 받기와 Facebook, Twitter, e-mail로 보내기

Synapse 논문에 대한 인용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DOWNLOAD CITATION** 아이콘을 화면 상단에 추가 배치 하였습니다 (그림 1 ①). 또한 Citation을 "Formats:" 메뉴에 논문 보기 형식 중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림 1 ②). 이 링크들을 누르면, 해당 논문의 Vancouver style (NLM style)로 작성된 인용 정보와 함께 다양한 서지정보 형식으로 저장 또는 내보내기 할 수 있는 Pop-up 창이 열립니다 (그림 1 ③과 ④).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배열되어 있는 "Export:" 메뉴에도 기능과, Facebook, Twitter, e-mail로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1 ⑤).



2016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2016년도 의편협 정기총회가 오는 3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1 강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날 개최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되고 회원인준, 회칙 개정, 차기 회장 선출 등의 중요 안건들이 다뤄지고 또한 의편협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